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전체 벼 공동방제 긴급투입 약제지원

고창군이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해충 종합방제에 총력전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은 최근 벼 병해충 공동공방제지원에 총사업비 7억 4000만원(군비15억2100만원, 자부담2억2300만원)을 전체 벼 경작지(1만115ha)에 종합방제약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멸구류, 나방류 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 해남에서는 벼멸구가 예년에 비해 15일정도 빨리 발견됐다. 고창군도 대부분 읍면에서도 7월 중순부터 멸구류가 발견되고 있다. 방제 적정시기는 포기당 2마리 이상 발견시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야 멸구 밀도와 피해를 줄일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읍면농업인상담소와 함께 벼 품질과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긴급방제하기 위해 일제출장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온라인 유통시대 대응 라이브커머스 교육

정읍시가 농업인의 온라인 직거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라이브커머스 심화 교육이 실천 중심 커리큘럼으로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부터 실습 강의실에서 지역농업인과 귀농 예정인 20명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까지 총 6회 차로 운영된다. 교육은 이론부터 플랫폼 실습까지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 과정은 △채널 기획 및 제품 등록 방법 △촬영 장비 활용법 △실시간 방송 운영 실습 등 라이브커머스 운영 전반을 다뤘다. 특히 정강현 코리이온 테크협동조합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실제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정읍시, 시민 생활안정 · 지역경제 활력 기대

정읍시는 21일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228억원 규모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2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은행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이 시민들에게는 생활안정의 다짐돌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골목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당신의 1평 갯벌 구매 갯투게더에서 시작하세요”

부안군, 한평·생 부안갯벌프로젝트 공유플랫폼 오픈

부안군과 월드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 ESG협회 등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가 참여 문턱을 낮추고 대중에게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21일 온라인 참여 도메인 플랫폼(<https://wvgattogether.kr/>)을 정식 오픈했다. '한평·생(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는 국민 한 사람이 1평의 갯벌을 소유함으로써 사유지 갯벌의 난개발을 막고, 염생식물 식재를 통해 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높이는 전국민 갯벌 보전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갯벌 1평을 구매해 지분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의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는 지난해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환경 보전과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생활 인구 증가가 기대되어 이번 '갯투게더' 도메인 오픈이 프로젝트가 한층더 UP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민관 협력으로 ESG+VRI 현실회해 추진한 사례는 매우 의미있으며, 이번 '갯투게더' 도메인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등에도 대중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기습폭우 대비 군민 안전 확보 철저히 해달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리 철저 등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기습폭우에 대비한 군민 안전 확보 철저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1일 열린 7월 중 연석회의에서 “최근 중부와 남부지역에 쏟아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5000명 이상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안도 이와 유사한 기습성 폭우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주민 안



현장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지급 현장에서는 신청방법, 대상자별 금액,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해 민원 응대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행정 성적표 도내 1등 도전

정읍시, 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 행정역량 강화 총력

정읍시가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최상위권 달성을 목표로 정량 지표 실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정량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실적 부진 지표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합동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는 정량지표 65개와 정성지표 8개 등 총 73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보고회에는 6월 기준 달성률 50% 미

만인 정량지표 15개를 담당하는 12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각 부서장은 소관 지표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합동평가는 우리 시 행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전 부서가 협업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이어가야 한다”며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실적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1차 이후의 개선 성과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ICT 기반 스마트팜 설치 지원

정읍시가 2026년부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ICT 기반 농업시설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며 디지털 농업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농업시설에 접목해 노동력 절감과 정밀 농업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온실에 ICT 장비 및 관련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자동개폐기,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양액재배 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원예현대화 지

원' △다결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환경센서, 생육센서, 영상장비 등 ICT 장비를 설치하는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8월 16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려면 스마트팜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폭염 대응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 일수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는 9월까지 만성질환자 및 독거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고창군보건소,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에 총 42명의 방문보건 전달 요원을 배치하여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한 건강상태(열감, 혈당 등) 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교육 △경로당 및 무더위 쉼터 이

용 안내 △교육 자료 배부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배부(쿨 토시, 부채 등) 등이 포함된다. 특히 폭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관내 전 경로당(611개소)에 '폭염예방 건강수칙'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또 42명의 전달요원이 경로당과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실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법, 무더위 쉼터 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장회의 등 주민 대상 회의에서도 폭염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폭염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폭염은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